

| 데이콤 · 포티넷 |

#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 월 6만원으로 해결하세요”

강태진 기자 telecom@krtele.com

**지**난해 125인터넷 대란을 시작으로 최근 중국을 경유한 해킹 시도가 국내 기간망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기업에서는 보안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경기침체와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백에서 수 천 만원대에 이르는 보안시스템 구축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보안 솔루션 업체들과 손잡고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월 6만원이면 보안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 여기서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중·소기업 예산 부족으로 정보보호 능력 크게 떨어져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내 중·소기업, ISP 업체, 전자상거래업체, 학교, 공공기관, PC방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보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구축된 시스템으

로는 백신(80.1%), 방화벽(49.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화벽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중 ISP 업체와 공공기관은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과 정부 방침에 따라 보안 시스템 구축률이 높았지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학교 등은 구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기본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CEO의 정보보호 인식부족,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부족, 시스템 설치에 따른 서비스 속도 저하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의 CEO들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시스템 구매, 전담인력 확보 등 금전적 부담임을 감안하면 결국 예산이 정보보호 시스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 Case Study 1. eBridge “PC방에 적극 권해주고 싶은 상품”

인천공항 내 출국장과 입국장 각 2곳에 인터넷 라우터를 운영하는 eBridge는 지난 연말 신박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MS-SQL Server 등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총 84대의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이 각각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다문으로 한 달여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공항 내에서의 인터넷망 이용이 보안이 까다로워 복구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나 eBridge 전산 담당자는 “백이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주면서 시스템이 다운되자 한 달 동안 주동산들과 부동산실을 오가며 네트워크 복구가 매달리아 했다며 사스 백신 복구를 위해 고생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eBridge는 기존 백신만 설치돼 있던 PC의 입단스위칭 허브 일대에 지난 3월부터 시큐어백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월 4만5천원 이하를 백신 프로그램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총 84대의 시큐어백스를 각 인터넷 라우터

마다 설치하고 해당 6~7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 대리는 “사업 초기에 이런 서비스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고성을 안했을 것이라며 ‘인터넷 사이트나 PC방 운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서비스’라고 밝혔다. 실제 eBridge는 지난 5월 극심한 부러며 병원 신산병까지 다운시켰던 큰 시서(Casser) 없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김 대리는 “출국장 2곳에 있는 인터넷 라우터는 외국인 방문 빈도가 높아 해외 사이트 접속률이 높다”며 “설치 초기, 시큐어백스의 URL 필터링 기능이 의해 잘 들라 접속이 안되는 해외 사이트가 있어 외국인들이 불편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위해서는 구축 시 구축담당자와 충분한 인터넷 사용 환경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